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국가균형발전 전북에서 시작”

민주도당, 이재명 후보 전북 7대 공약 설명회

“정부 메가시티 정책 확장 ‘새만금·특별자치시도’ 국가 단일권역 육성 전략 국립 스포츠클럽plex 설립, 이 후보 공약 채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가 밝힌 전북 7대 공약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당은 특히 이재명 후보의 전북 7대 공약 가운데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조성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봤다.

도당은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강소권 메가시티 정책을 보다 확장한 개념으로 이는 전북을 호남이 아닌 단일권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도당위원장이 김성주 국회의원(전북 전주병)과 김윤덕(전주갑)·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이원택 의원(김제·부안)·양경숙 의원(비례)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 19일 전북을 찾아 “전북에서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시작하겠다”며 전북 관련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밝힌 전북 7대 공약은 △에너지 대전환과 그린수소산업 육성을 이끄는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중심 전북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권 육성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부활 금융·탄소소재산업 등 신성장 동력 육성, △공공항만, 철도 컨벤션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새만금 개발 신속 완성, △역사문화와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 조성, △교통인프라 구축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등이다.

이 후보는 이날 “대동사와 인내전은 제 삶의 궤적, 삶의 방향과 일치한다면서 “지역 불균형발전의 피해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가 밝힌 전북 7대 공약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 전북이 발전해야 국가균형발전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가장 어려운 지역인 전북부터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가오는 대전환의 시대는 전북에게 기회와 성공의 시대가 돼야 한다”면서 전북발전 7대 공약 실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는 국가의 존속을 좌우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라고 밝힌 뒤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된 전북도민을 위한 약속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중대한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이 공약에 대해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을 중요시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전북에서 시작하겠다는 의미”라며 “대한민국 전환의 큰 변화에 기초해서 한 축을 만

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의원은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이 독자적 권역으로 간다는 것을 공식화 한 것”이라며 “이 공약에는 이재명 후보의 국가 균형발전

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또 국립 전북 스포츠클럽plex 설립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채택됐다고 밝혔다.

남원지역에 설립되는 국립 전북 스포츠클럽plex는 전문체육인을 위한 선수촌 생활체육인을 위한 복합스포츠 시설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도 지난 16일 전북을 방문해 남원에 국립 스포츠 종합훈련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성주 의원은 “전북 공약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연구했다”며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진보나 더 꼼꼼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생태문명 역량 강화

도, 도·시·군 공무원들 대상 교육 실시 생활 속 생태문명 접근·실천과제 제시

전북도는 도와 시·군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도 주요 시책과 정인 ‘생태문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기후변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맞이해 생태문명이란 전북의 미래전환 방향을 이해하고, 생태문명산업 육성에 전력하고자 맞춤형으로 기획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도와 14개 시·군이 함께 ‘생태문명 선도 협력 선언’을 한데 이어, 생태문명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확인하고 생활 속 실천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신현영 대도야청년과장은 생태문명 배경, 생태문명 정의 및 내용, 실천과제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문명의 흐름이 농업문명-산업문명-생태문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기후위기에 따른 전북의 미래 전략을 생태문명으로 정의 사람과 자연이 공존을 추구하는 미래가치라고 언급했다.

또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집’을 통해 생태문명을 설명한 뒤 ‘생태문명은 친환경과 미래기술이 함께 하는 것’으로 도민 모두의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서 눈에 띄는 장면도 있었다. 교육자료에 K-pop 주역인 BTS의 동영상, 생태문명 시대의 일상, 도의 강점을 활용한 협력사업 등이 담겨져 교육생의 흥미와 이해를 도왔다.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과의 구분이 명확해졌고, 생태문명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친환경과 미래기술이 함께하는 것임을 알았다”라며 “업무에서도 생태문명적 사고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작년 3월 기후 위기 등에 따른 미래정책으로 ‘생태문명 비전’을 선포하고, 7월에는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민·관·학·연이 함께 논의하기 위한 ‘생태문명 컨퍼런스’를 11월에 개최, 생태문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14개 시·군과 공동으로 생태문명 선도 선언식을 추진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임인년을 생태문명의 원년으로 삼고 도민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설명회, 도민참여형 실행사업, 컨퍼런스 등 공존화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한옥 신축 보조금 최대 5000만원 지원

용자금 2억원 한도로... 한옥단지 내 건축시 우선 선정 기존 한옥 보존·관리 위한 ‘등록한옥’ 제도도 운용

전북도가 한옥 거주를 위해 건축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5,000만원과 2억 한도 용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신축할 경우, 보조금(최대 5,000만원)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한 용자금(최대 2억원, 연리 2%)을 10~14등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개축 또는 리모델링은 최대 3천만원이며, 등록한옥 또는 한옥마을 내 중·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옥 주택으로서, 최소 80㎡ 이상의 규모로 한옥의 형태 등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한옥 건축 기준에 따라야 한다.

특히, 한옥 군락 형성을 위해 한옥단지 내 건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에 가치 있는 기존 한옥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등록한옥’ 제도도 운용한다.

‘등록한옥’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건축한 한옥 중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 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도지사에게 등



록한 한옥을 말한다

한옥 신축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공사 완료신고 후 해당 한옥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옥’은 중·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도는 한옥건축을 희망하는 자가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시·군과 함께 컨설팅을 포함한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도는 2월말 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를 거쳐 4월 초까지 시·군 건축부서를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옥건축을 희망하는 자가 시·군 한옥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소정의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시·군과 함께 한옥건축과 관련한 행정적 지원

도 추진할 예정이다.

노형수 도 주택건축과장은 “한옥은 절기의 멋과 맛을 아는 자랑스런 전통 양식이자 신선한 공기가 순환하는 생태건축이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이 한옥의 매력과 가치를 보존하고 ‘한옥과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한 건축자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윤석열, 오늘 군산·익산 방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2일 군산과 익산을 찾는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 16일 전주역 첫마중길에서 전북거점유세를 진행한 지 6일만에 다시 전북을 방문한다. 앞서 12일 열정열차를 타고 전주를 남원을 방문했던 것을 포함하면 2월에만 세 번째 전북 방문이며, 지난해 12월 방문까지 합치면 네 번째 전북행이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갑작스레 잡힌 대통령 후보자 TV 토론회를 통해 이준석 당대표와 함께 열정열차를 타고 방문할 예정이었던 군산과 익산을 찾지 못했다.

이에 군산, 익산 시민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네 번째 전북 방문 장소로 군산과 익산을 선정했다고 도당 선대위는 설명했다. /뉴스1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2/4 입춘
2/19 우수
3/5 경칩

희망과 확신 2022년 코로나 종식!!

전주현대옥 JEONJU HYUNDAIOK Korea Restaurant Since 1979